

결혼과 출산기피의 한 이유: 여성의 관계역할

조혜자[†]

방희정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이 논문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여성들의 결혼기피와 저출산 현상의 한 이유가 가족 내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관계역할 때문일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과거와는 달리 여성들은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차 고정관념적인 여성역할을 거부하고, 경제활동과 공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사적인 공동체인 가족 내에서 여성에게 요구하는 역할은 여전히 가사와 양육 등 사회가 처방한 성 역할이다. 여성에게 자신보다는 가족에게 헌신하고 관계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처방하는 성 역할은 여성의 결혼 만족도나 자아감, 직업역할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고, 결국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거부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족 내에서 남녀 모두 성 고정관념에 묶이지 않고 자율적이고 평등하게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결혼기피, 저출산, 성 고정관념, 처방적 성 역할, 관계역할, 어머니역할

[†] 교신저자 : 조혜자,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E-mail : hiejacho@hanmail.net

가족은 애정 공동체이며, 세상에서 지친 개인들이 안식을 얻는 피난처이고 보금자리라고 개념화되어 왔다. 이러한 개념 배경에는 애정을 베풀고 자신을 희생하는 보이지 않는 여성들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당연하게 수용되어 왔던 이런 가족의 이미지에 대해, 이제 여성들은 “누구를 위한 피난처이고 보금자리인가?”라는 물음을 묻게 되었다. 교육받고 의식화된 여성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여성의 성역할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며,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가족형태의 변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혼인율의 감소와 이혼율의 증가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92년에는 천 명당 9.6명의 혼인율이었던 것이 2000년도에는 7.0명으로, 2003년도에는 6.3명으로 줄어들었다. 이혼율은 92년도에는 천명당 1.2명이었던 것이 2003년도에는 3.5명으로 두 배 이상이 늘어, 혼인율에 대한 이혼율 비율은 50%를 넘어섰고, OECD 국가 중 2위라고 한다. 이혼율의 증가는 한 부모 가족의 증가로 이어진다. 게다가 과거에는 이혼이 결혼 초반에 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오래 산 부부의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15년 이상 산 부부들의 이혼율이 92년도에는 15.7%에 불과했으나 2003년도에는 32.7% 이다). 이혼의 유형에도 변화가 있어,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여성들이 이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여성들이 이혼의 주체가 되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62.8%에 이르고 있다.

또 다른 심각한 사회문제는 저 출산 현상으로, 인구 고령화와 연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입여성(15-49세) 한명이 낳은 자녀수는

1.19명으로, 인구의 현상유지에 필요한 2.1명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OECD국 평균인 1.6-1.7명에도 못 미치는 세계 최저수준이라고 한다. 게다가 수명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령층 비율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000년에 고령인구가 7%를 넘는 고령화 사회인데, 2018년에는 고령인구 14% 이상의 고령사회, 2026년에는 고령인구 20% 이상의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 출산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나타나다가(2005년에는 6세-21세의 학령인구가 21.8%이지만, 2050년에는 10.8%로 줄어든 것이라고 예측된다), 점차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은 노동력 부족 때문에 국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되고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산부인과와 소아과의 환자 수 감소현상은 앞으로 유아원, 유치원, 초중고대 학생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직업과 경제생활의 패턴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정책들이 입안되고 있지만, 그러나 여성들의 결혼 기피나 출산기피현상은 나아지는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거나 아기를 낳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는 생태학적, 사회적, 제도적인 차원의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한 가지 이유를 한국 가족 내에서 여성에게 처방되는 성역할인 관계역할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성 고정관념과 가족 내 성역할

결혼과 더불어 남녀가 담당하는 역할은 무

엇인가? 가족은 가장 사적인 공동체로, 가장 편안하고 의미있는 친밀한 관계이다. 그러나 가족은 가장 사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위치가 정해져 있고, 개인이 맡아야 할 역할은 그의 능력이나 개성을 따르기보다는 사회적인 기대, 규범을 따르고 있다. 우리의 내외법에 따르면, 남자는 바깥 역할을 맡아야 하고, 여자는 안 일을 맡아서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규범은 오랜 세월을 이어져 오면서, 성 고정관념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어려서부터 반복해서 접해온 고정관념은 자동적으로 활성화되어, 이것을 어기는 경우 본인에게는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타인들은 그를 징죄하는 경향성이 있다.

성 고정관념은 남녀가 소지한 것처럼 보이는 특성들에 대한 믿음의 집합으로서(Deaux & LaFrance, 1998), 그 타당성과 진위와는 상관없이 남녀 범주에 개인적 속성을 연결시켜 추론하도록 만들 뿐 아니라(Ashmore, 1987), 그러한 특성들을 개인에게 처방하여 강요할 수 있다. Deaux와 Lewis(1984)는 성 고정관념의 구성요인으로 특성, 역할, 직업, 신체적 특징을 밝히고 있다. 이중 역할과 관련된 성 고정관념은 남성의 도구적(instrumental)이고 주도적(agency)인 특성, 여성의 표현적(expressive)이고 공동체적(communal)인 특성으로 요약되어 왔다. 여성의 역할은 부드러움, 양육, 동정과 같은 여성적인 성격특성과 연결된 역할로 가정을 돌보는 것이며, 남성의 역할은 경쟁심과 공격성, 독립성과 같은 남성적 특성과 연결된 경제적 역할로 정의되어 왔다.

남녀 역할과 관련된 성 고정관념은 인간생식과 관련하여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라고 믿어진다. 아기를 생산하고 기르는 여성들은 아동에게 생식투자를 하면서 정서적 역할을 맡

게 되었고, 생식투자에서 자유로운 남성들이 과제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Glick & Fiske, 1999). 역할분화는 어떤 집단에서 개인들이 담당해야 하는 영역을 지정해 주는 것으로서, 집단에게 부과된 과제를 완수하는 것과 동시에 구성원간에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두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어난다(Forsyth, 2001). 따라서 역할은 다양하게 분화될 수 있지만, 크게 과제역할과 정서적 역할로 묶어볼 수 있다. 이러한 역할분화가 가족 내에서도 일어나 남성들은 과제 역할을, 여성들은 정서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맡는 역할은 초기에는 임의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점차 역할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지배하고, 개인이 가진 특성처럼 굳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성역할과 관련된 고정관념의 내용은 다른 고정관념과는 달리 기술적인 메시지보다는 처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 사회적 배열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기술적 고정관념은 그 집단 대부분의 구성원의 행동과 능력, 선호도 등을 기술하는 것으로, 그 이미지에 맞추어야 마음속의 기준(anchor)으로 작용하는데 그치지지만, 처방적 고정관념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작동하는 울타리(fence) 역할을 하게 된다(Fiske, 1998). 특히 가족 내의 성역할과 관련된 고정관념의 내용은 다른 영역의 고정관념보다 더 처방적인 내용들로서,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하고, 여자는 살림을 잘 하고, 아기를 잘 기르고,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한다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 고정관념의 내용들은 점차 사회가 바뀌고 젠더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수용되고 있지는 않다. 특

히 교육받은 여성들의 경우, 과거와는 달리 여성의 문제를 인식하면서 여성역할과 관련된 고정관념을 거부하는 추세이다. 방희정과 조혜자(2004)는 남녀 대학생 446명을 대상으로 성격, 역할, 능력, 행동, 외모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6점 척도를 통해 알아본 결과, 전반적으로 여자 대학생들의 성 고정관념은 남자 대학생들에 비해 낮았고, 특히 자신이 속한 여성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은 낮을 뿐 아니라 여성의 역할과 행동에 대한 고정관념은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여학생들의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그중 남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비교적 높았다. 한편 남학생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이 높았지만 특히 여성의 외모와 남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높았다. 즉 남성들은 남성 역할의 책임을 느낄 뿐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성 고정형적인 기대를 하게 되는데 비해, 여성들은 남성 역할을 강조하고 남성에 대해서는 성 고정형적인 기대를 하지만, 여성 집단에게 처방되는 여성역할과 행동을 수용하는 경향은 낮은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시대적으로 조금씩 변화해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황은(2004)은 1991년도와 2002년도의 남녀 대학생의 가정 내 성역할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 본 결과, 일반적으로 여자 대학생들의 태도는 남자 대학생들의 태도보다 더 진보적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10년 동안 여자대학생들에게서 가장 많이 변화가 일어난 태도의 영역은 부부간의 의사결정 공유와 남편의 가정역할 참여에 대한 영역이었다. 즉 지난 10년 동안 남성들보다는 교육받은 젊은 여성들에게서 성역할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족 내 성역

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유지되고 처방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남녀 모두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높고, 특히 남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방희정, 조혜자(2004)의 연구에서나, 황은(2004)의 연구에서, 여성들은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는 개방적이고 가사참여에 대해서는 남녀평등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남성에 대해서는 경제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도 여성들이 외집단인 남성 집단에 대해서는 고정관념적인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러한 점이 사회적 구조를 변화시키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은 배우자 선택의 조건에 반영되어 성역할 고정관념을 유지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여성들은 자신들보다 더 나은 학벌과 경제력을 가진 남성들을 선호하고, 남성들은 아름답고 착한 여성들을 선호한다. 결혼중매 기관들의 접수기준이나 결혼 경사도는 이를 반영하고 있다.

최근에 Fiske 등(2002)은 고정관념은 두 차원에 따라 집단들을 범주화하는데, 능력차원과 따뜻함(warmth)차원이라고 지적한다. 유능성의 지각은 그 집단의 지위에 의해 결정이 되는 반면, 따뜻함은 집단간 경쟁이나 협동이나에 따라 결정된다. 성 고정관념은 전형적으로 여성은 착하지만 무능한 집단으로, 남성은 유능하지만, 여성보다 착하지 않은 집단으로 규정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더 선호한다. 그러나 따뜻함 차원은 단순하게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처방적인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남녀관계처럼 지배집단과 종속집단이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호의존적인 관계일 때, 지배집단은 자신들의 우수한 능력과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강조하면서, 종속집단에게 따뜻함 차원에서 처방적이고 가부장적인

고정관념을 요구하게 된다(Fiske, 1998). 이러한 주장은 가족구조에 적용시켜 설명해 볼 수 있다. 배우자의 선택이 남성들의 능력과 여성의 외모나 호감을 기초로 이루어진다면, 결혼 후 가족관계 속에서 경제적 부담을 책임져야 하는 남성들이 성 고정관념과 관련된 역할을 여성에게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남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여성들이 남성의 경제역할을 강조하고 능력있는 남성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자아실현을 포기하고 고정관념적인 성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앞의 연구들에서도 여대생들은 남성의 역할 고정관념과 여성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은 수용하지만, 여성의 역할에 대한 성 고정관념은 거부하고 있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여성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열리면서, 여성들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때,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성별을 고려하기 보다는 자신의 흥미와 관심, 취업의 기회와 전망, 적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길임주, 한대동, 2004).

최근에 발표된 통계청과 교육부의 조사결과들 역시 여성들에게 교육과 취업의 기회가 높아지면서, 의식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음을 보

여준다. 여성의 교육수준은 점차 높아져, 1985년도에는 대학졸업생중 37.0%만이 여성이었지만, 점차 증가하여, 1995년에는 42.0%, 2003년에는 48.8%에 이르고 있다(교육부, 2004). 즉 남성과 거의 동수의 여성들이 대학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이 공부하는 목적도 달라져, 2000년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의 기대교육 목적은 37.8%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이고, 37.0%는 소질 개발을 위한 것으로, 결혼을 잘 하고자 교육을 받는 여성은 드물었다. 이러한 여성들의 욕구는 대졸 취업률에 반영되어 나타난다(표 1 참조). 즉 과거와 달리 여성들도 고등교육의 기회에 열려 있고, 여성들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제적 활동에 참가하려고 노력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표 1>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

	여성 취업률	남성 취업률
2003년	61.8	67.1
2000년	53.3	58.6
1995년	59.3	77.2
1990년	47.3	70.5

자료: 교육부(2004), 교육 통계연보

<표 2> 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 (%)

	1991년도	1995년도	1998년도	2002년도
가정과 관계없이	16.7	24.7	30.4	40.2
결혼전, 자녀성장후	24.6	35.8	27.6	26.2
자녀성장후	23.9	16.1	14.0	13.4
결혼 전까지	17.8	11.3	10.3	4.4
가정에 전념	17.0	12.1	8.5	4.4

자료: 통계청(2003), 사회통계 조사 보고서

<표 3> 가사분담 실태 (%)

	부인이 전적책임	부인이 주로, 남편분담	공평분담	남편이 주로, 부인 분담	남편이 전적책임
1998년	44.9	47.1	5.7	2.0	0.2
2002년	37.9	51.0	8.1	2.5	0.5
20대	29.0	58.2	11.1	1.2	0.5
30대	40.7	50.9	6.7	1.4	0.4
40대	37.3	51.9	7.4	3.1	0.4
50대	36.8	49.9	9.0	3.6	0.7
60대이상	40.9	44.7	9.4	4.1	0.8

자료: 통계청(2002), 사회통계 조사보고서

취업에 대한 태도에도 변화가 있어, 이전에 가정에서 성역할을 담당하는 것과 절충하였던 태도와는 달리 점차 여성들은 가정과 관계없이 경제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반응이 높아지고 있다(표 2 참조).

이와 같이 여성들은 경제활동에 참가하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과거보다 기회에 열려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들의 임금 수준은 매우 낮아, 대졸 여성의 임금이 고졸 남성과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04). 아마도 이러한 성 차별적인 경제구조 때문에 여성들은 경제력있는 남성들을 선호하고, 결혼 후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남편에게 의존하면서, 가사노동과 양육의 부담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성들이 가사에 참여하는 비율은 세대별로 나아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가사는 여성의 몫이다(표 3 참조).

게다가 남편들이 가사를 도와주는 노동 참여시간은 매우 짧다. 한국 방송공사의 국민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는 2000년도에 금요일에는 13분, 토요일

20분, 일요일 32분이었고, 성인 여성의 경우는 금요일 175분, 토요일 177분, 일요일 156분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결혼 제도 자체에 대한 호감은 남성이 높고 여성이 낮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낮아진다. 여성부 조사(2004)에 따르면, 결혼을 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 낫다고 답한 비율은 20대 여성 54.1%, 20대 남성 61.8%, 30대 여성 59.1%, 30대 남성 67.7% 였다. 과거에 여성에게 경제활동의 기회가 막혀 있을 때에는 남성에게 온전히 의존해야 하고, 여성들은 가정을 꾸리는 안사람 역할을 거부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젊은 세대일수록 가족 내 여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점차 여성들에게 거부당하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여성의 가족내 관계적 역할

여성의 관계와 남성의 관계

전통적으로 우리들이 수용해 온 가족이란

남자와 여자가 만나 이루는 이성애적 가족을 의미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가족형태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성애적 가족에만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과거의 전통 가족과는 달리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970년대에 3세대 가족이 22.1% 달했던 것에 비해 2000년에는 9.9%로 줄고, 대신 1세대 가족은 17.1%, 2세대 가족은 72.9%로 핵가족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핵가족이 되었다고 해서 여성들이 시댁식구들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가족역할에서 해방되어 직업역할에 몰두하게 되지만, 여성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친정 식구들 뿐 아니라 시집식구들과의 관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특히 가족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결혼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에서 여성들은 성 역할을 강하게 처방받게 된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관계적이고, 관계 안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지적해 왔다. 여성들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주장함으로써, 성별 분업의 당위성을 설명해 온 것이다. 정신분석학적 전통의 학자들은 여성이 남성과 다른 신체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자아 정체감이 남성과 다르다고 강조해 왔다. 예를 들어, Erikson(1968)은 남녀 모두 동일한 발달단계를 거치며, 자아의 강도 역시 남녀 구별이 없지만, 여성은 아이를 잉태하는 자궁이라는 내적 공간을 가진 신체구조적 특징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생물, 심리, 윤리적인 관여 등 친밀한 인간관계가 정체감 형성에 우선한다고 보았다. 이후 여성주의 정신분석학자나 심리학자들은 신체 구조적 차이를 자아와 연결시켜 설명하는 것을 비판하였지만, 여성들이 자아를

규정할 때 관계성을 근거로 정체감을 형성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Chodorow(1989)는 전 오이디푸스 시기부터 어머니와의 대상 관계적 경험에 의해 남녀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즉 양육을 담당하는 어머니가 아들에게는 분리와 독립을 장려하므로 아들은 동성인 아버지의 남성 역할을 지위동일시 하면서 독립해 가지지만, 딸에 대해서는 분리된 인간으로 지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매일 구체적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딸은 자아경계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성격은 관계와 연합위에서 형성되며, 엄격한 독립적인 자아경계보다는 침투적이고 유동적인 경계를 가지며, 개별적인 자아감을 형성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Gilligan(1982)도 여성은 남성과 달리 자아감과 도덕성을 타인에 대한 책임감이나 돌봄과 연결시킨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많은 심리학자들의 이론이 남성 중심적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여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타인과의 정서적인 연결이고, 타인의 삶을 성장시키는데 가치를 두고 있음을 지적한다.

최근에는 독립적 자아해석(independent self construal)과 상호의존적 자아해석(interdependent self construal)양식이 주장되고 있다. Cross와 Madson(1997)은 자아는 역동적인 문화적 창조물로서, 개인주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집합주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아해석 양식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또한 개인주의 문화라 하더라도 젠더화된 세계 속에 살면서 남성들은 독립적 자아해석이 우세하고, 여성들은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이 우세하다고 지적한다. 독립적 자아해석은 타인과의 분리, 자율성 유지를 중심원리로 하고, 자아정의에 자시의 내부적 습관, 기술, 그리고 태도를 근거로 포함하고 관계는 자아정의에 덜 중요하

게 보는 것이다. 반면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은 타인과의 경계가 열려있고, 사회맥락과 친밀한 관계의 표현이 자아의 중요부분이 된다. 이런 자아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주요 목표는 관계 유지이기 때문에, 자존감과 자아고양은 타인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사고와 감정, 친밀한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돕는 기술과 행동, 타인의 성공과 기쁨에 참여하는 것 등이 관련된다. Cross 등은 독립적인 자아해석을 하는 사람들과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정보처리 양상에서부터 기억하는 양상, 동기, 정서의 표현, 자기개방의 정도, 의사소통의 양상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 남성과 여성의 성차는 바로 이런 자아해석 양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이들은 모두 다른 입장에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관계적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남성과는 달리 여성들은 항상적이고 일관성있게 관계적 자아 정체성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다. 즉 다분히 본질주의적인 관점에서 여성 내부에 존재하는 관계적 경향성이 자아 정체성에 반영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구성주의 입장에서 보자면, 남성과 여성 모두 어떤 맥락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냐에 따라 자아 정체성이 관계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Eagly(1987)는 여성이 양육적이고 관계적이 된 것은 여성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이 남성과 다르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노동의 성분업은 임의적인 것이었지만, 결국 남녀간에 현저한 사회적 범주를 만들었고 그 속에 놓여 있는 남녀가 다른 특성을 표현하게 만들었다고 본다. 즉 여성의 특성이 관계적인 것이 아니라 여성이 맡는 역할이 관계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사실상 남성과 여성이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남녀의 관계적 특성은 변화할 수 있고, 자아 정체성 역시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가족 속에서 여성들이 맡고 있는 역할은 매우 고정관념적인 것이다. 우리 문화에서 여성들은 결혼을 하고나면, 가족 내에서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라는 관계적인 명칭으로 불려지게 된다. 그를 부르는 명칭은 그를 규정하고, 역할을 할당하는 힘을 지닌다. Butler(1993)는 내가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나는 호명되고, 불려지며, 의미 지워진다고 말한다. 즉 아내나 어머니, 며느리는 개인적인 관계이지만, 그 명칭들은 모두 젠더로 묶여지고, 그 명칭에 속해있는 역할내용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성들이 가족 내에서 갖는 관계는 매우 사적인 관계이며, 특수한 의미있는 타인들(specialized other)과의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사적인 관계에서는 그 개인을 잘 알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들이 고정관념적인 특성들보다 우선해서 작동하게 된다고 밝혀져 왔다(Fiske, 1994). 그러나 가족관계는 가장 사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나 어머니, 며느리에게 기대하는 특성은 성 고정관념적이다. 즉 사적이고 친밀한 가족관계 속에서 여성은 사회가 규정한 일반적인 법칙(generalized order)인 고정관념과 관련된 역할을 맡고, “착한 여자” 처방을 받는 것이다. 여성들은 외모만 예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예뻐야 하고, 살림도 잘 해야 하며, 시댁 식구들에게도 착해야 하고, 아이도 잘 길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 고정관념적인 관계적 역할은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전통적인 여성들에게는 문제없이 수용되지만, 진보적이고 자아실현을 하려는 여성들에게 수용되기는 어렵다. 김혜원, 김명소

(1998)와 조금숙, 조중열(2004)의 연구에 따르면, 전업주부의 경우 진보적 성역할 태도를 가질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진 반면, 보수적일수록 안녕감이 높아졌다.

반면 남성들은 사적인 관계 속에서조차도 지배나 권위와 관련된 역할을 기대 받는다. 우리 문화는 가족의 번영, 가문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가족주의가 강하고, 그 배경에 상하 수직관계, 가부장적 권위주의, 남존여비사상을 암묵적으로 내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적인 관계 속에서도 남성이라는 사실은 이점이 크다. 그리고 남성들에게 사적인 관계는 공적인 관계로 확장해 나가는 발판이 되고, 도구로 이용이 되기도 한다. 특히 우리의 가족구조는 성별분업체계를 바탕으로 남성들에게는 바깥일을 책임지도록 하기 때문에, 남성들은 성별이 문제되지 않는 사회적이고 공적인 관계들에 보다 많이 관여하고 가치를 두는 것이 또한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되고 있다. 박수애와 조은경(2002)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들은 주도성과 성취지향성, 가족에 대한 책임, 의리를 남성의 역할로 중시하고 있으며, 주도성이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았다. Harter(1998)는 자존감은 자율성이 증가되고, 지지집단을 많이 가질 때라고 지적한다. 남성들이 사회적이고 공적인 관계를 확장해 가면서 자신이 가진 능력과 관심, 흥미와 관련하여 다양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관계의 폭이 확장되면서 지지기반이 넓어지며, 따라서 자존감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남성들의 성역할의 역기능도 존재한다. 남성들의 경제적 능력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는 경우, 사회의 일반법칙을 위반하는 것이 되고, 관계의 폭도 확장되지 못하고 사적인 관계에서도 지지받지 못하는 위

태로운 관계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중년 남성의 경우 가정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이 강할수록 직업에 대한 불만과 우울감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박수애, 조은경, 2002).

어머니 역할

가족 구조 내에서의 성역할 강조는 자녀 출생과 더불어 더욱 강해진다. 가사에 동참하는 남성들도 육아 문제에 오면 양육의 역할을 여성에게 거의 맡기게 되는 것 같다. 여성개발원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기혼 남녀에게 양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크냐고 물었을 때, 81%의 남녀가 똑 같다고 대답하지만, 정작 양육의 역할은 주로 어머니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여성개발원, 2003). 이와 같은 이유로, 자녀를 낳은 여성들은 자신의 정의 중 가장 중요한 범주가 “어머니”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중에서도 최근에 아기를 낳은 여성들은 아기가 자기 인생의 80-90%를 차지한다고 말한다(조혜자, 미간행).

물론 여성들이 아기를 출산한 후, 아기와 상호작용하면서 얻는 기쁨은 매우 크다. 게다가 아기의 존재는 부모의 개인적 성숙을 이끌고, 보다 공감적이고 친밀한 애정을 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거의 모든 여성들은 어머니가 되면서 심각한 개인적 변화를 겪는다. 아기는 어머니들에게 기쁨을 주지만, 분명히 긴장과 압력을 불러일으키는 원천이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그만 아기를 혼자서 돌보아야 하는 경우, 어머니들은 24시간 돌보는 일에 매달려 다른 일들을 계획하기조차 어려워진다. 아기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여유가 생기기는 하나, 어머니들의 시간은 여전히 아기들에게 묶여있게 된다. 어

린 아기를 돌보면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지루함과 좌절, 분노 등은 자기 인생에서 아기를 낳고 기르는 경험이 가장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분명히 괴리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아기가 태어나면서, 세상은 모든 사건들을 아기의 관점에서만 이해하려 한다. 이상적인 어머니 상은 ‘아기를 위해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수행하는 것으로, 모든 어머니가 이를 통해 만족과 보람을 느끼도록 기대되어진다. 따라서 “어머니”라는 단어는 따뜻함, 배려, 관대함, 사랑 등의 다양한 즐거운 정서와 관련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은 쉬우면서도 만족스러운 일이라고 믿게 만든다. 발달과 관련된 이론들과 연구들의 주된 관심사 역시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을 위해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있다. 이러한 어머니 신화는 여성들에게 수많은 책임과 짐을 지우고, 이상화하며,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것을 요구하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덧붙여 아이가 잘못되는 것은 어머니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짙다.

아동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쌓여가고, 모성의 전문화(함인희, 1997)가 이루어지면서, 어머니 역할은 이제 단순히 따뜻하게 돌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과학화된 발달이론에 따라 적절하게 아기들에게 자극을 제공하고 상호작용해 주어야 하며, 아동의 욕구를 잘 읽어내어야 한다. 더욱이 앞으로의 사회는 20%가 나머지 80%를 먹여 살려야 하는 치열한 경쟁사회라고 한다. 이러한 사회에서 자기 아이가 20%에 속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어머니들은 어릴 때부터 치열하게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많은 어머니들은 자기가 아기들의 삶을 망치고 있을지 모른다는 느낌으로 불안과

죄책감을 가지는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기는 좌절과 분노, 긴장 등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를 자신의 정체성의 중심에 두므로, 정체성을 위협받지 않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거나 수용하기는 어렵다. Nicolson (1998)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부정적이고 양가적인 감정을 고립이나 분노와 같은 용어보다는 적응의 실패나 우울 같은 용어로 설명함을 발견했다. 그리고 여성들이 상반된 감정 사이에 갈등하면서 ‘나는 우리 아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와 같이 가족이 안정되고 사랑을 기초로 한 보금자리가 되었던 배후에는 많은 여성들의 희생과 불평등한 역할들이 존재해 왔다. 식구들은 어머니의 개인적인 욕구는 무시하고, 당위적인 어머니 역할을 기대한다. 어머니는 식구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리 등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도구적인 일들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덧붙여 위로하고 격려하며 보살피고 돌보는 정서적인 일들도 수행하는 동시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감독하고 관리하며 많은 시간을 헌신한다. 해야 한다. 어머니가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다른 여성을 대타로 그 자리에 있도록 해야한다. Kristeva(1981)는 그래서 여성의 시간은 순환적이며, 역사에서 밀려난 시간이고, 장소적인 시간이라고 지적한다. 이렇게 여성들이 가족 내에서 여성 고정관념과 관련된 종속적인 역할에 묶이게 되면 자율성은 약해지게 된다. 그 결과, 결국 자신의 성장은 저해되고 자존감은 약화되고, 관계의 폭이 좁아지면서 지지기반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여성들의 관계는 가족과 관련된 사적 관계가 대부분이며, 지지적인 관계의 수가 한정되

어 있고, 이렇게 관계의 폭이 좁을 때에는 부정적인 상황을 당면할 때 대안적 완충통로를 찾지 못하고, 그 경험에 모든 주의를 빼앗겨 우울증 등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심리적 경험

이러한 관계적인 역할들 때문에 결혼 생활의 여러 관계들에서 남성과 여성의 심리적 경험은 매우 다르다. 표 4에서 보듯이, 남성들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40.7%는 매우 만족하고, 전반적으로 69%가 만족하고 있지만, 여성들의 매우 만족하는 경우는 28.5%에 불과하고, 전반적으로는 55.5%가 만족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Bernard(1972)는 His marriage와 Her marriage라고 명명하면서, 남성들은 결혼에서 얻는 것이 많지만, 여성들은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만족도가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여성들의 가족생활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Grimmell(1998)의 사회갈등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성 역할이 세가지 기제로 개인의 안녕감(wellbeing)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그중 하나는 젠더와 불일치한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여성들의 자기주장의 억압이고, 둘째는 성역할과 관련하여 여성들이 자기를 무시한 채(self-neglect) 타인을 돌보는 행위이며, 셋째는 성역할을 잘 수행하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부정적인 자기평가라는 것이다. 즉 이상적으로 성역할을 잘 수행하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오는 성역할 자기괴리가 자신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Grimmell의 이론은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성역할과 관련된 심리적 역기능들을 잘 설명해 준다. 조혜자, 최효일(1999)의 연구에 따르면, 기혼여성들은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모습은 감추고 긍정적인 여성적 특성들을 드러내며, 가장 자신이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들이 시댁에서는 성 고정관념과 불일치하는 행동은 금지하면서, 자기주장을 억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Harter(1997)는 여성들은 관계 의존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실제 모습을 반영하지 않고 타인들이 긍정하는 견해들을 혼합해 거짓자아(false self)를 형성할 수 있다고 지

<표 4> 가족생활 만족수준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불만	매우불만
배우자와의 관계	남자	40.7	25.3	29.4	3.2	1.4
	여자	28.5	27.0	34.2	7.1	3.2
자녀와의 관계	남자	42.0	28.5	25.7	3.3	0.6
	여자	36.7	31.3	27.4	3.9	0.7
부모와의 관계	남자	33.7	27.4	34.0	3.9	1.0
	여자	31.6	29.4	34.7	3.5	0.7
배우자부모와의 관계	남자	28.8	24.1	42.0	4.1	1.0
	여자	21.0	23.2	43.3	9.4	3.2

자료: 통계청(2003), 사회통계 조사보고서

적한다. 중요한 타인의 요구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억제하고 타인이 듣고 보기 원하는 것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유교전통이 강한 가부장적인 우리 문화에서, 여성들은 시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억제하고 결국은 부정적인 자아를 경험할 수 있다.

한편 여성들의 자기를 무시하고 타인을 돌보는 행위는 공의존성(codependency)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 의존성은 1980년대에 소개된 개념으로, 약물남용이나 알콜중독자의 가족들이 과도하게 중독자들에게 매어달려 열중하는 것을 지적하고, 가족도 치료상황에 개입시켜야 한다는 지각에서 만들어진 개념으로, 최근에는 일반인에게도 적용하여 설명되고 있다. 특히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 문화에서는 현모양처, 효부, 열녀 등의 개념으로 공의존성을 부추겨 왔고, 공의존성은 치료 대상이 아니라 칭송 대상으로 여겨왔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자아의 중심에 자신보다 타인을 놓고, 배려하고 돌보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부정적인 자기평가는 모성과 관련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모성이 전문화되면서, 많은 정보와 노하우를 가지고 아이들을 성공적으로 양육한 어머니 사례들이 신문을 통해, TV나 잡지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 어머니 역할을 중심에 두고 있는 여성들은 그런 어머니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자녀들이 공부를 잘 못하거나 빗나간 행동을 할 때, 어머니는 자신이 이상적인 어머니 노릇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죄책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다른 사회적 역할을 중시하는 여성들은 사회가 부추기는 이상적인 어머니 기준에 도달

하기 어려우므로, 잘못된 어머니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여성의 직업역할과 가족역할

현대 산업화의 큰 변화는 가족과 시장의 변화라고 지적되고 있다. 가족의 변화 기저에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가족생활에서의 성역할 변화가 자리한다. 높아진 교육수준과 능력을 바탕으로 노동시장에 관심을 돌리는 여성들은 전통적 성별 분업에 대해 저항하고 있다. 또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혼자서 떠맡으려는 남성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정에서는 성별 분업이 공고한데, 앞에서도 보았지만,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나가 일을 하더라도 출산과 양육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다중역할을 담당할 때, 여성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이 문제는 두가지 입장에서 다루어져 왔다. 하나는 결핍가설로서, 다중역할이 갈등을 야기하며 역할 과중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역할 과부하는 다양한 원천에서 비롯되며, 역할 갈등은 다중 역할들의 경쟁적인 요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다중 역할의 요구들은 업무 중에도, 끝난 후까지도 심리 생리적인 각성상태와 연결된다고 밝혀지고 있다(Lundberg, 1996). 그리고 두가지 다른 역할의 요구에 동시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직업을 가진 어머니들의 과제에 대한 흥미나 감성을 나쁘게 만든다는 것이다(Williams, Suls, Alliger, Learner, & Wan, 1991).

반면, 촉진가설에서는 다중 역할이 역할들의 어떤 부분에서 비롯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

과에 대항하는 완충지(buffer)로 작용한다고 본다. Cosby(1991)는 다중 역할을 갖는 것이 적어도 세가지 이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다중 역할에 제공하는 방해가 아닌 진정한 다양성은 강한 심리적 안녕과 연결되고, 다중 역할은 다중의 청중들, 즉 서로 이야기하고 피드백을 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며, 어떤 나쁜 일을 닦칠 때 피할 수 있는 완충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Cosby의 관찰은 다른 연구들에서도 지지되었는데, 다중 역할은 장수와 연결되며, 신체적 건강,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자기 효능성과 연결된다고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가족의 갈등에 대항하는 완충지 역할을 하며, 특히 도전적인 직업을 가진 경우, 다중역할의 갈등은 더 줄어든다는 것이다 (Yoder, 1999).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입장은 직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역할이 주는 부담의 정도에 따라 다중역할이 때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김혜원 등(1998)의 연구에서는 직업의 지위, 임금, 피로 등이 심리적 경험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미숙(2000)의 연구에서도 여성이 사무직이나 전문직 직업을 가진 경우, 비취업이나 생산직에 종사하는 여성들보다 더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즉 다중역할에서 중요한 것은 역할의 수가 아니라 역할의 질이나 기타 다른 요인들임을 알 수 있다. Jenkins(1996)는 14년 추적 연구를 통해 자기의 역할을 자율성으로 정의내리는 사람들은 보다 전통적인 것을 답습하지 않고, 다중 역할을 역할 갈등없이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한편 조금숙 등(2004)은 취업주부의 경우 성역할 태도가 진보적일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고, 역할갈등이나 우울감을 더 적게 경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자신의 직업역할

을 의미있게 바라보는 것이 여성들에게 다중 역할을 긍정적으로 수행하게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신의 역할들을 다룰 능력이 있다고 느끼는 것 역시 중요하다. 아기를 잘 기르는 것과 동시에 자기가 유능하게 직업 역할을 다룰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역할 긴장을 덜 보고했다(Franks & Stephens, 1992).

다른 한편 다중역할을 수행하면서, 각각의 역할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는가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업과 가족은 여성과 남성에게 다른 의미를 지닌다. Simon(1995)은 18세 이하의 아동을 둔 직업을 가진 어머니 아버지들을 면담한 결과, 직업과 가족에 대한 의미가 각기 다름을 발견했다. 남성들은 경제적인 자원을 조달하는 것이 좋은 아버지의 중요 부분이었다고, 여성들은 자신의 일차적인 책임은 가정이고 취업은 부가적 책임이라고 보았다. 한경혜 등(2003)은 한국 성인 남녀의 직업생활과 가족생활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본 결과, 남성에게서는 가족에서 일로의 긍정적 전이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여성에게서는 가족에서 일로의 부정적 전이가 높게 나타났다. 즉 가족은 남성에게는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쉬게 해주는’ 영역이지만, 여성들은 가족을 위해 담당해야 하는 역할비중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각 역할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직업에서 많은 시간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 가족생활이 방해받게 되고, 가족생활에서 많은 시간투자를 요구하는 경우 직장생활이 방해받게 된다. 그리고 두 가지 역할에 투자하는 시간의 총합이 클수록 일과 가족의 전반적인 갈등이 증가한다(Gutek, Searle, & Klepa, 1991). 그렇다면 직업을 가진 여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직업역할 뿐 아

나라 가족역할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므로 전반적으로 일과 가족의 갈등이 더 높을 것이다. 특히 양육은 어떤 시기에는 더 요구적이다. 우리의 경우, 육아시설의 부족으로 양육의 짐은 여성의 몫이고, 아이가 어릴 때에는 시간 때문에 오는 갈등이 높을 것이다. 한편 아이가 커 가고, 정보가 필요해지면 점차 유능성의 문제 때문에 겪는 갈등이 높아질 것이다. 더욱이 교육열은 높고,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현실에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다른 어머니들과 연대하거나 좋은 정보를 나눌 기회가 적어, 어머니 역할을 유능하게 할 수 있는 기회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러나 앞서서도 보았듯이, 점차 세상은 바뀌어 가고 자신의 직업역할을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능력있는 여성들이 늘어가고 있다. 여성들의 의식 수준은 매우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는데 비해, 가족 내의 성역할과 남성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매우 느리게 변화해 가고 있다. 더욱이 아동발달과 관련된 이론들은 부모에게 양육의 짐을 더욱 무겁게 지우고 있다. 그렇다면, 자신의 직업역할이나 자아실현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여성들이 역할 갈등을 예상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가? 가족 내의 성역할이 달라지지 않고, 양육의 책임을 사회가 함께 져주지 않으면서, 결혼제도 안에서 여성에게만 가사와 양육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면,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거부하는 현상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가며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해체가 진행되고 있

다고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해체되고 있는 것은 가족 내의 고정관념적인 성역할일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인간은 "관계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가족을 구성할 것이고, 최선의 선택을 찾아 변화하고 적응해 갈 것이다.

최근에는 관계 속에서의 배려와 돌봄은 21세기에 추구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여성적 가치로 자리매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여태껏 자율성을 상실한 관계 속에서 여성들에게만 일방적이고 종속적으로 요구되었던 배려와 돌봄은 많은 역기능적인 결과를 낳았고,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의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미래사회에 대한 염려를 야기하고 있다. 기존의 이론들이 남성은 자율성과 독립을 가지며, 여성들은 연결성과 민감성을 갖는 것으로 강조해 왔지만, 이는 여성들이 살면서 맺었던 관계가 가족에 한정되고 자율성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나왔던 현상이었을 수 있다.

이제 사회가 변화해 가고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높아지면서, 여성들은 자신을 규정할 때 개인적인 가족관계 역할로 규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더 큰 사회 속의 다양한 역할로 자신을 규정할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여성들에게 폐쇄적이었던 공적인 기회의 문이 열리고, 능력이 신장되면서, 여성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강요되는 희생과 봉사로서의 돌봄은 점차 거부하고, 새로운 역할과 지위, 파워를 추구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선택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껏 가족과 사회를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으로 이분화하고, 여성들에게 사적 영역에서의 관계역할을 담당하도록 해 왔다면, 이제는 이분법적인 영역을 해체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사적 영역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회는 가족, 특히 어머니에게

만 맡기던 양육의 책임을 사회가 맡아, 더욱 과학화된 방법의 발달공학을 적용한 공교육 제도를 구축해 어린 나이에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여성들이 양육이나 성역할에서 오는 죄책감 없이 자신의 능력을 키워가고 선택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면, 결혼기피, 출산기피의 문제는 일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제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율성을 잃지 않으면서 서로서로 배려가 필요한 시대이다. 가족 안에서도 젠더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고, 주체성이나 자율성을 잃지 않고 개인의 능력을 키워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돌보고 서로 힘을 길러가게 된다면(empowerment), 결혼 기피나 출산거부는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참고문헌

- 교육부 (2004). 교육통계연보
- 김임주, 한대동 (2004). 학부제 하의 남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28(4), 233-260.
- 김혜원, 김명소 (1998). 취업이 기혼여성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 성역할 태도를 중심으로. *한국 심리학회지: 여성*, 3(1), 35-50.
- 박수애, 조은경 (2002) 남성 성역할이 우리나라 남성들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77-103.
- 방희정, 조혜자 (2004). 성 고정관념 활성화가 남녀의 자아해석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1), 83-106.
- 여성개발원 (2003). 여성통계 보고서.
- 여성부 (200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이미숙 (2000). 부인의 취업상태에 따른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부인의 가정성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4), 145-161.
- 조금숙, 조중열 (2004).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 성역할태도, 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3), 27-42.
- 조혜자 (미간행). 한국 여성의 관계적 자아 FGI 조사.
- 조혜자, 최효일 (1999). 한국 중년여성의 관계적 자아표상: 여성적, 남성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1), 129-140.
- 통계청 (2002, 2003, 2004).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한경혜, 김진희 (2003). 일, 가족 상호작용에서의 성별차이: 전이개념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학* 37(3), 57-81.
- 함인희 (1997). 한국여성의 가족주기와 역할의 변화. *한국여성연구원 창립 20주년 기념 대회 학술대회보*, 123-178.
- 황은 (2004). 1991년도와 2002년도 남녀 대학생의 가정내 역할에 대한 성역할 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77-89.
- Belle (2002). *Proceedings of Summit on Women & Depression*. Wye River conference Center, APA.
- Bernard, J. (1972). *The future of marriage*. NY: World.
- Chodorow, N. (1989). *Feminism and psychoanalytic theory*. New Haven: Yale U. Press.
- Cosby, F. (1991). *Juggling: The unexpected advantages of balancing career and home for women and their families*. NY: Free Press.
- Cross, S., & Madson, L. (1997). Models of the self: Self construals and gender. *Psychological*

- Bulletin*. 122(1), 5-37.
- Deaux, K., & LaFrance, M. (1998). Gender.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788-827). NY: McGraw Hill.
- Deaux, K., & Lewis, L. (1984). Structure of gender stereotypes: Interrelationships among components and gender lab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91-1004.
- Eagly, A. (1987).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A social role interpretation*. Hillsdale, NJ: Erlbaum.
- Erikson, E.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Norton.
- Fiske, S. (1993). Controlling other people: The impact of power on stereotyping. *American Psychologist*, 48(6), 621-628.
- Fiske, S. (1998). Stereotyp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357-411). NY: McGrawHill.
- Fiske, S., Cuddy, A., Glick, P., & Xu, J. (2002). A model of (often mixed) stereotype content: Competence and warmth respectively follow from perceived status and compet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878-902.
- Franks, M. & Stephens, M. (1992). Multiple roles of middle-generation caregivers: Contextual effects and psychological mechanisms. *Journals of Gerontology*, 47, S123-S129.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 Glick, P., & Fiske, S.(1999). Sexism and other "isms": Independence, status, and the ambivalent content of stereotypes. In W. Swann, J. Langlois, & L. Gilbert(Eds.), *Sexism and Stereotypes in Modern Society* (193-222), Washington DC, APA.
- Grimmell, D. (1998). Effects of gender-role self-discrepancy on depressed mood. *Sex Roles*, 39(3/4), 203-215.
- Gutek, B., Searle, S., & Klepa, L. (1991). Rational versus gender role explanations for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6(4), 560-568.
- Harter, S. (1997). The personal self in social context: Barriers to authenticity. In R. Ashmore & L. Jussim(Eds.). *Self and identity*. NY: Oxford.
- Harter, S. (1998). The development of self representations. In D. William et al.(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pp. 553-620). NY: John Wiley & Sons.
- Jenkins, Y. (1996). Self-definition in thought, action, and life party choic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99-111.
- Kristeva, J. (1981). Women's time. *Signs*, 7(1), 13-35.
- Lundberg, U. (1996). Influence of paid and unpaid work on psycho-physiological stress responses of men and wome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 117-130.
- Nicolson, P. (1998). *Postnatal depression: Psychology, science and the transition to motherhood*. London: Routledge.
- Simon, J. (1995). Gender, multiple roles, role meaning,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 182-194.

- Williams, J., Suls, J., Alliger, G., Learner, S., & Yoder, J. (1999). *Women and gender: Transforming psychology*.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Wan, C. (1999). Multiple role juggling and daily mood states in working mothers: An experience sampling stud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6, 664-674.

K C I

A reason of Korean women's avoidance tendency of marriage and child-bearing: Gender role stereotype

Hyeja Cho

Hee Jeong Bang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deals with a hypothesis that a recent trend on the part of Korean women to avoid marriage and child-bearing is due to the way how Korean women perceive women's role in Korean family. Many Korean women, as they are more educated, tend to reject many traditional women's stereotypic roles and try to participate in economic fields and other public sectors. Yet in family, the most private community, most women are expected and to fulfill stereotypic roles like house keeping and child rearing, and many women are limited only to these roles. Women's stereotypic roles to care other family members more than herself and to live relation-centered life affected women negatively in the way how women feel toward marriage, job performance and most of all self esteem. This network of women experiences enforce women to behave as they do in avoiding marriage and child-bearing.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re is an urgent need to loosen women's stereotypic roles and to empower women to live an autonomous life with human dignity.

key words : avoidance of marriage, low birth-rate, gender-role stereotype, relational role, mothering.